



2026 한·일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포스터. 제주도 제공

제주·일본 나라 청소년 세계유산 매개 미술 교류 12월엔 협업 결과물 전시

제주와 일본 나라 지역 청소년들이 두 도시가 품은 세계유산을 매개로 만난다. 2026 한·일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는 2016년 한·중·일 3국이 해마다 대표 도시를 선정하는 동아시아문화도시의 파트너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첫째 나라를 시작으로 일본의 도시들과 꾸준히 문화예술 교류를 이어왔다.

한·일 청소년 교류는 매년 문화예술 분야를 바꿔 진행하고 있다. 미래 세대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 협업 역량과 리더십을 키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제주에서는 '세계문화유산에 예술을 칠하다'란 주제를 내건 이번 교류를 위해 미술에 관심 있는 도내 고등학생과 대학생 8명을 공모로 선발했다. 일본 나라시에서도 청소년 8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제주 청년 예술인 김승민이 총괄 멘토를 맡고 권민오·장예린·박주애가 미술 전문가 멘토단 일원으로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를 지원한다.

제주 참가자들은 이달 22일 사전 교육 프로그램인 '동아시아 제주문화 클래스' 수강에 이어 28일엔 나라시를 찾아 세계문화유산을 무대로 예술 교류에 나선다. 9월 4일에는 나라시 청소년들이 제주에서 펼쳐지는 미술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두 지역 청소년들의 교류 프로그램 결과물은 오는 12월 5~10일 제주문화예술포럼 전시실에서 볼 수 있다. 전선희기자

마음속 정원으로 이끄는 빛의 변주곡

사진가 김병국 9번째 개인전 자연광·인공광 정교한 조율한 그루 나무 치유 메신저로

“사진은 사실성과 기록성이라는 고전적 정의를 탈피하여, 작가의 주관적인 내면세계를 표출하는 상징적 매체로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제주 사진가 김병국의 최근 작업은 '작가 노트'에 실린 이 문장에서 출발한 것 같다. 그는 사진을 단순히 대상을 포착하는 결과물로 여기지 않고 카메라를 매개로 그 앞에 마주한 존재들과 깊이 있게 교감하는 만남의 행위라고 말한다.

김병국 작가가 '나의 정원'으로

이름 붙인 9번째 개인전에서 그 여정을 풀어낸다. 이달 24~30일(오전 10~오후 5시) 갤러리 이호(제주시 백포서3길 12, 이호1동), 9월 9~30일(오전 10~오후 5시) 노바운더리제주(서귀포시 표선면 변영로 2610 2층) 초대전이다.

작가는 평범한 제주의 들판에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며 나만의 정원으로 향한다. 온전히 어둠이 내리기 전 자연의 잔광이 머무는 '블루 아워' 시간대에 인공적인 광원이 만나며 빛어낸 풍경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순간 풍경 한가운데 자리한 나무는 이 땅에 뿌리내린 어떤 식물을 넘어 관람자의 지친 영혼을 어루만지는 위로와 치유의 메신저

가 된다.

작가는 이처럼 제주에 흠뻑 있는 익숙한 피사체들을 새로운 모습으로 화면 위에 불러낸다. 빛의 정교한 조율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그것들은 저마다의 마음속에 정원의 일부로 피어난다.

김 작가는 이번 작업에 대해 “빛의 변주를 통해 현실의 풍경을 내면의 풍경으로 치환하는 과정이며, 가장 익숙한 곳에서 가장 낯선 자신을 마주하는 고독한 고백이라 할 수 있다”며 “일상의 풍경 속에 숨겨져 있던 신비로운 층위를 선명하게 드러내며 관객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낯설고도 경이로운 시각적 체험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김병국의 '나의 정원'.

작가 제공

상처의 회복·희망의 노래 4·3 트라우마 치유 음악회 제주불교4·3추모사업회

우리에게 친숙한 선율로 제주 4·3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고 미래를 그린다. 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가 주최하는 제3회 4·3 트라우마 치유 명상 음악회다. 오는 30일 오후 6시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기억의 노래, 치유의 울림'이란 이름을 단 이번 음악회는 상처

의 회복과 희망을 노래하는 무대다. 4·3의 아픈 기억을 오늘의 삶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를 되새기려는 취지다.

음악회는 '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멈춘 봄' '관음사, 침묵 속의 기도' '슬픔을 건너, 다시 봄' '기억하는 봄' 순으로 구성했다. 이를 따라 '에스터데이' '그대 떠나는 날에 비가 오는가' '서쪽 하늘에' '그날들' '슬퍼하지마' '사랑가' 등 귀에 익은 음악이 흐른다.

공연 중간에는 4·3 당시 토벌대와 무장대의 격렬한 전투 현장에

있던 관음사의 역사적 기억을 되짚는 영상 해설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순서엔 '각정말아요 그대'를 관객과 함께 부르며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할 예정이다. 관람료 무료.

연주는 어쿠스틱 밴드 '카멜리아 사운드'가 맡는다. 기타 고수 일(기획), 보컬 허진무·강제원, 피아노 오지학, 타악기 이은경.

제주불교4·3희생자추모사업회는 “이번 음악회가 단순한 위로를 넘어 감정 정화와 깊은 공감, 나아가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전선희기자

지금 여기의 삶을 비추는 신화 속으로

제주문화포럼 제주신화전 21회 전시 오는 25일부터 30여 명 평면·입체 작업

제주 신화는 창작자들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지금 여기의 삶과 마주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있다. 제주문화포럼의 제주신화전은 그 점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20회에 걸쳐 참여 작가들이 저마다의 조형 언어로 신화에 담긴 상징 등을 풀어냈다.

지난해 제주신화전 20주년 기념전을 치른 제주문화포럼이 초심을 떠올리며 올해 21번째 전시를 준비했다. 이달 25일부터 9월 6일까지 산지천갤러리 2·3층 전시실.

‘다시 여는 열두본풀이’란 부제를 붙인 이번 제주신화전에서는 제 목처럼 열두본풀이를 새롭게 해석한 회화, 조각, 설치, 영상, 인터랙티브 아트 등이 나온다. 자청비, 한락궁이, 천지왕, 대별왕, 소별왕 등 신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작품 등 전통적인 신화가 오늘날의 예술과 만나 어떻게 새롭게 읽히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사유한 작업들이 펼쳐진다. 참여 작가는 초대 작가 포함 30명이 넘는다.

개막 행사는 오는 29일 오후 5시.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 설명과 함께 오프닝 공연으로 제주 두루나눔의 사자춤을 볼 수 있다. 전선희기자



송미지자의 '자청비에게 길을 묻다'. 제주문화포럼 제공

제주문화포럼은 그동안 물질적 성장에 매몰되지 않는 정신문화 회복을 위해 제주 신화를 공부하고 전시를 열며 제주 문화의 원형을 알리는 노력을 이어 왔다. 고경은 제주문화포럼 원장은 제주신화전 초대 회에서 “제주 신화는 단순히 전해오는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이야기이기도 하다”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간절히 꿈꾸었던 삶을 무엇이었는지 돌아볼 때 제주 신화는 다시 우리 앞에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다”고 했다. 특히 “AI 시대를 맞아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지금, 제주 신화가 전하는 삶의 지혜와 가치를 다시 들여다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제주아트센터 뮤지컬 ‘앤ANNE: 배리어프리’ = “2026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지역 유동 지원 사업” 선정작. 9월 11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30분, 9월 12일 오후 3시. 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 앤’을 각색한 창작 뮤지컬로 무대 위 수어 통역, 음성 해설, LED 자막 해설, 점자·보이스아이 리플릿 등이 제공된다. 입장권 예매 개시는 이달 20일 오후 2시 제주아트센터 누리집.

▷탐라도서관 야외도서관 운영 = 캠퍼용품, 감귤 상자 등 친숙한 소재를 활용해 제주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독서·휴식 공간을 꾸민다. 운영 장소는 탐라도서관 야외정원(9~

10월 매주 금·토요일), 애월 고내포구(9월 11~12일), 한경면 상계물공원(9월 18~19일), 애월 레포츠공원(10월 9~10일), 한경면 상계물공원(10월 16~17일) 등이다. 정보라 작가 초청 야외 북토크 등을 준비했다. 애월레포츠공원 야외도서관은 ‘애월도서관 북페스티벌’과 연계 운영한다.

▷제주항일기념관 ‘2026년 태극기 그리기 대회’ 우수작 전시=미취학 어린이가 670명이 참가한 그리기 대회 우수작 50점을 1층 로비에서 전시하고 있다. 대상 수상자는 장하은 어린이(토평초 병설유치원)다. 전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受賞 農心天心 特別賞

김 군 진
(본원 이사, 한경농협 조합장)

농업과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힘써 오신 뜻깊은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수상을 온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큰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우리생활선문화원
원 장 김 남 호
www.lifegood.or.kr

승진 서귀포시교육장

강 지 선

서귀포시교육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외가 형제 가족 일동

승진 치안정감

고 평 기
(제주경찰청장)

치안정감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제2회 동창회
회 장 강 일 우 외 회원 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대勢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집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3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7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매년'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구독 750-2330·서귀지사 732-5552